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연속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속기도는 3월 22일(월) 0시부터 4월 3일(토) 24시까지입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하경임 집사, 출산(22일)을 앞두고 있는 한누리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2 호

2021년 3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자기 홍보 시대와 세레 요한

한국의 대중 문화를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가 수출되어 방영됨에 따라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리, 의류, 배우들을 좋아하고 따라 하게 된다. 세계 시장에 한국 것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시아권의 한류를 벗어나 K-POP이라는 음악의 한 장르로 세계에 퍼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자료의 양과 보관 방식에 있어서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신문이나 문서로 기록된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출판물과 기념품, 영상들로 그 자료가 방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가수들이 한국과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 등 동서양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S방송국에서는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K'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가요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POP이 동양을 벗어나 서양에까지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대중매체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존의 제작사를 통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서로 추천하면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 시작점이 우리가 한번 들어 봤을 법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다. 특이하면서도 재미와 신나는 음악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음악임에도 1억 뷰를 넘어 서면서 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 그 이후 한국의 대중음악을 말하는 K-POP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면서 음악의 한 장르를 형성하게 된다. 지금은 BTS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주축으로 관심과 팬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 또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팎으로 잘 나가지 못할 때 대리만족으로 각 나라에 있는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쌍방향,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의견을 묻고 원하는 대로 하기도 한다. 다양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의 즐거움 외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고아원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주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모아주고 영상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보여준다. 또 우연히 들린 집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 또 오지마을에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장난치면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방송인도 보게 되었다. 자기 PR(Public Relation) 시대, 즉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게 하며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해 졌다. 자기의 환경, 생각, 자신의 관리를 하고 인터넷 상에 여러 가지 기록을 잘 남긴다.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전 40일 동안 더욱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올 한해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레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살기 위해 낙타 털옷을 입었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자신보다 더 능력있는 자가 뒤에 올 것인데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성서일기 진도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다. 마가복음을 읽는 중에 특이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자기 홍보의 시대,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는 시대다. 그렇지만 세레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현 시대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던 세레자 요한, 기적과 이적 후에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주간의 말씀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9:2~13절

제목 :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인도 : 정재훈 전도사

기도 : 김중필 집사

찬송 : 405 401 86 180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2절~8절<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시다>

9절~13절<제자들의 질문>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현
 실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거
 록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주셨습니다. 제자
 들이 미처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 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3. 의미의 적용(How)

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② 그 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③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하지 않으셨던가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겐 안락과 사치와 우아한 삶을 희생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교회가 선교회 설립에 얼마의 돈을 내놓고 몇 명의 극빈자를 도우면 그것
 으로 예수를 따르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억만장자가 구제 사역에 1
 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이 희생일까요? 그는 개인적 고통이나 고난은 전혀
 감수하지 않고, 없어도 티도 나지 않는 금액의 돈을 내는 건 아니까요? 오
 늘날 대다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희생과는 아주 거리가 먼 편
 안하고 쉽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독교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진실했는가'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허울뿐인 선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
 은 것 중에서 티도 나지 않을 정도의 것을 내놓는다거나 어려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각 기독교인, 사업가, 시민은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신의 길과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길입니다. 저물어 가는
 금세기와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새롭
 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자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이 주인을 따르듯 말 그대로 주님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단순하고 사도적인 기독교와 닮은 꼴입니다.

이런 순전하고 희생적인 제자도가 아니고선 이 시대의 파괴적 이기심과 부
 딛히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찰스 쉘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 권재만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편 121 : 1-8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6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268	다함께
고백의 찬송		다함께
공동기도		인도자
복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태복음 4 : 17 - 25	설교자
성가대 찬양	150	사랑방
설교	“ 전도, 천국을 전파하는 삶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38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전도, 천국을 전파하는 삶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여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17> 회개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닌 그 삶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으며 그 삶을 경험하도록 섬기셨습니다. <23>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회개의 길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심으로 평화를, 회당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정의로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의 사랑을 통해 자연스레 전해지고 가르쳐지며 확장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학교는 매일 변신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병원, 미용실, 고양이 집, 점프대, 기차, 식당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만약 지난 주간에 꾸러기학교를 방문했다면, 머리에 잔뜩 펴(자석놀이장난감) 기구를 붙이고 동네 미용실 의자에 앉은 아주머니로 바뀐 이어람 선생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고양이 한두 마리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블록으로 계단을 만들고 아래에는 무지개 매트를 깔고 줄을 서서 계단 아래로 뛰어내리는 꾸러기들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꾸러기학교에 올 때는 밥은 먹고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대접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그건 아마도 꼬마 요리사가 손님과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었던 탓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 꾸러기학교는 또 어떤 변신을 할까요? 모두들 기대해주세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주제탐험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어린이 학교 학생 모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작은 모둠으로 나뉘어 후, 그 주제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한걸음 물러서 어린이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어린이 스스로가 직접 무엇을 할지 정하고 직접 공부하며 함께 공유하면서 재미있고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올 해 첫 주제탐험의 주제는 봄입니다. 어린이들 각자가 직접 모둠을 선택하기에 어떤 모둠은 인기가 있기도 한데 이번에는 봄 농사가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봄 농사 이외에도 이야기 만들기, 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봄에 있는 축제들 탐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주제 탐험 시간을 통해 좀 더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3월 7일 개학 이후 2주간의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오늘 멋쟁이들이 등교합니다.

방역, 소독, 체온 기록, 비말 차단 등 작년에 시행했던 것을 기반으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등교 전 교사와 멋쟁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생활하고 귀가합니다.

또한 생활관으로 기존 교육관 방과 공동주택, 그루터기 외부 숙소를 사용하여 방별 수용 인원을 줄여 생활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멋쟁이 교사와 학생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장성아 >

이름도 얼굴도 없는 오른손으로서

지금 멧쟁이학교에서는 등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저기를 쓸고 닦고, 물건을 정리하고, 교육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어느덧 사물함을 정리하던 도중에 사진 몇 장을 주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멧쟁이 학생들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접촉이 훨씬 어렵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사진 속 멧쟁이들은 가깝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찡그린 얼굴과 웃는 얼굴, 그리고 그리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얼굴들에는 햇빛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것은 잠깐이었지만, 그 사이에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어주었을까?' 사진을 뚫어지게 봐도, 제 눈의 성능으로 사진을 통해서 카메라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바자회 중에 찍은 사진으로 보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 수소문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나왔겠지요. 그렇지만 사진을 갈무리하는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들의 웃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사진이 세상에 남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이지,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그 점을 더욱 강하게 체감하게 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 밑바닥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아주 많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공동체학교가 등교하는 중에는, 베다니 하늘주방의 음식을 먹습니다. 시설 보수와 수리는 그루터기 지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매일매일의 방역 소독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누군가가 쓰레기를 주워가서 깨끗한 마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다양한 마음들이 모이는 모습에서 사랑과 섬김, 의무와 선택의 열매를 맛봅니다. 필요한 일이 진행되고, 곤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변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사진을 핀으로 벽에 꽂으며, 변함없는 웃는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때완 달리 삶에서 우리는 여러 '당연함'의 개념이 깨져 있어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매 순간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는 생활이, 그런 사진 찍기와도 같은 행위들 위에 있음을 이젠 압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티내지 않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분들,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행동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태도를 닮아가며,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주는 무명의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누가복음 6장 27절-36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미얀마의 군인과 경찰이 쿠데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유혈진압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어린 아이가 공격받기도 하는 등, 수위가 매우 큽니다. 미얀마의 땅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학교와 함께 가는 공동체들을 위해>

- 1) 밝은누리 공동체, 민들레 공동체 등 학교 운영으로 교육사역의 뜻을 펼치는 공동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 2)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3. 지역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도록.
- 2) 사랑방공동체학교와 그 모든 식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 3)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가 쾌유하기를.

<생활공동체 소식>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춘분을 지나면서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네요. 주말에는 봄비마저 내려서,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먼지를 많이 씻겨내렸습니다. 어린이, 꾸러기 학생들은 등교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 적응들이 굉장히 빠른 모습들입니다. 멧쟁이학교는 이번 주부터 등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 마당이 떠들썩해 질 것 같네요. 마당의 나무들이 초록으로 점차 덮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포천시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지역전파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